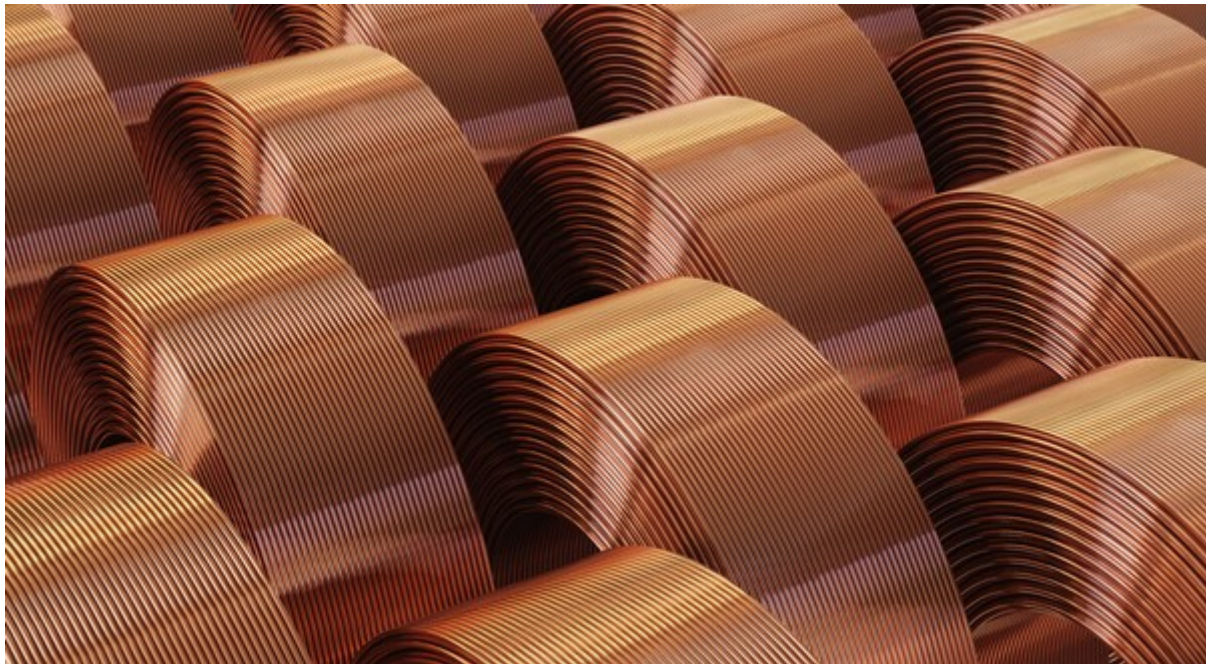


# 구리가 보여주는 경제지표, 세계 경제 둔화 시작되나?

경기 지표로 사용하는 구리 가격, 지속해서 하락 추세  
실물 경제가 악화한다는 신호일 가능성 존재

기사입력 2023.05.26 14:08육지훈 기자



[사진=셔터스톡]

구리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1톤당 9435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1월 값에서 16% 이상 감소했다. 현재 구리는 11월 이후 최저 수준인 1톤당 7900달러에 거래된다. 4% 포인트 더 내려오면 약세장으로 판단될 수 있다. 구리 가격 하락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다가온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구리는 중요한 산업 금속이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은 구리를 일상생활에서 직접 접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를 체감하기 어렵다. 하지만 금융인들에게 구리 가격은 신뢰할 수 있는 경제 지표 중 하나다.

구리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소비되는 금속이다. 부식에 강하고 열과 전기를 모두 전도하는 특징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된다. 구리 가격은 세계 경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 중 하나로 여겨진다. 그래서 금융인들은 구리에 경제를 진단하는 박사라는 뜻의 '닥터 코퍼(Dr. Copper)'라는 별명도 붙였다.

나탈리 스콧 그레이 스톤엑스 원자재 분석가는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최근 구리 가격 하락은 세계 경제에 대한 걱정스러운 신호라고 말했다. 그는 "서방이 예측한 것보다 수요의 타격이 크다는 최초의 구체적 증거다"고 설명했다.



[사진=셔터스톡]

크리스 베론 스트래티지스 리서치 파트너스 기술 및 거시 분석 관리자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구리와 금 가격 비율을 경제 선행 지표로 제안했다. 구리는 실물 경제에서 널리 사용되는 반면 금은 투자자들이 안전 자산으로 구매하기 때문이다. 만약 구리에 비해 금 가격이 상승한다면 기업은 지출을 줄이고 투자자들이 불황에 대비한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있다. 베론은 포춘에 "구리, 금 비율이 완화된다면 앞으로 경제가 더 무난하다는 징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대 구리 소비국인 중국이 가격 인상을 견인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코로나19 봉쇄를 풀면서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중국은 완만한 성장을 보이며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알 먼로 원자재 거래 기업 마렉스 금속 분야 전략가는 24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강세 시나리오는 모두 중국의 경기 회복을 전제로 했지만 서방 국가들이 경기 둔화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실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록 구리 가격이 하락세에 접어들었지만, 미래 전망을 낙관하는 분석가도 있다.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의 금속 수요 증가와 지난 몇 년간 생산량 증가에 따른 채굴 투자 부족이 이유다.



[사진=셔터스톡]

사이먼 모리스 CRU 금속 담당자는 지난달 로이터에서 구리 생산업체들이 수요에 맞춰 공급하려면 10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향후 10년간 650만 톤의 신규 광산 용량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휴 로버츠 퀀트 인사이트 분석 담당자는 24일 보고서에서 "구리 가격은 이미 상당한 악재를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로버츠의 인공지능 기술 분석에 따르면 구리는 작년 7월 이후 가장 저렴한 상태다. 심각한 경제적 둔화가 다가오지 않는 한 반등할 기회가 있다고 암시했다.

로버트 프리드랜드 아이반호 광산 설립자도 26일 카타르 경제 포럼에서 블룸버그에 현재 구리 가격 하락은 일시적이라고 전망했다. 프리드랜드는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면서 증가한 전기차 수요로 인해 향후 수십 년 동안 구리 수요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구리 개발 협회( Copper Development Association)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보다 최대 10배 많은 구리를 소모할 수 있다.

그는 "우리는 충분한 구리를 찾아내야 하는 위기에 빠졌다"며 "앞으로 25년 동안 인류 역사상 채굴한 구리만큼을 캐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